김건희 휴대폰 샅샅이 뒤진다… 주가조작 혐의 추적

검찰, 확보해 둔 휴대폰 압수수색 집행… 첫 강제수사
사건 발생 수년 지나 확실한 증거 확보할지는 미지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이 해당 사건을 대상으로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한 의혹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김여사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약 4년 반에 걸쳐 김여사의 주가조작·방조 혐의를 수사한 뒤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했으며 그동안 이 사건으로 강제수사를 집행한 사례는 없었다.

앞서 김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여사 계좌가 범행에 일부 동원된 것은 맞지만 시세 조종을 인지하고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김여사는 다른 계좌주들과 함께 권 전 회장의 "주식을 관리해 수익을 내 주겠다"는 말에 속아 계좌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이 해당 사건을 대상으로 첫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이를 받아들여 재수사가 결정됐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김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 수사팀을 결성하면서 앞서 이 사건을 조사했던 검사를 영입했다.

고검은 김여사의 휴대전화에 주가조작 가담·인지 정황이 담겨 있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만큼 휴대전화에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남부지검은 김여사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대검 포렌식 센터에서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김여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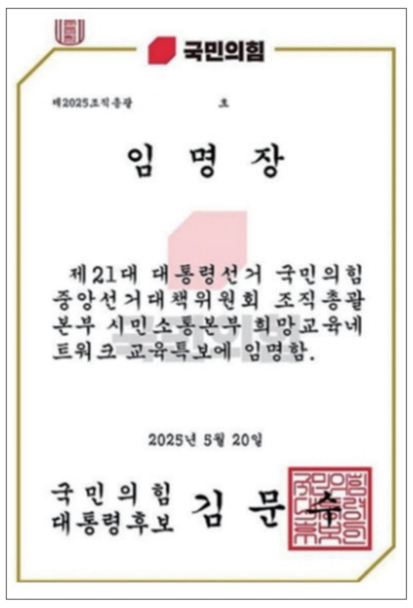
남부지검은 김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 등 고가의 물품을 받은 의혹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은 김여사가 명태균 씨와 관련해 국민의힘 국회의원·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김문수 후보 '교육특보 임명장' 문자 전교조, 개인정보·선거법 위반 고발

전국 교사들에 무차별 발송
일부 민주당 인사에도 전송
선대위 사과 "정보 전량 폐기"



국민의힘

제2025조직총괄 호

임 명 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김 문 수

국민의힘이 발송한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 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적혀 있다. 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국민의힘을 개인정보유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2일 고발했다.

전교조는 국민의힘이 21일 전국의 불특정 다수 현직 교사들에게 선거대책위원회 교육특보로 임명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이날 다수의 교사가 '제21대 대선 국민의힘 임명장'이라는 제목의 문자를 받았다. 해당 메시지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는 인사와 함께 임명장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URL)가 첨부됐다. 이 링크를 클릭하면 실제로 임명장 확인은 물론 스마트폰에 저장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장에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 조직총괄본부 시민소통본부 희망교육네트워크 교육특보에 임명함. 2025년 5월20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김문수'라고 적혀 있다.

이같은 문자는 경기·충북·전북·광주 등 전국 단위에서 무차별적으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입장문을 내 "본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대선 캠프는 교사들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발송한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이 같은 행위를 멈춰야 한다"며 수사 당국을 향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위를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당 선대위는 이날 사과문을 내고 "사전 동의 없이 문자가 발송된 데 대해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전량 폐기했다. 향후 임명장 발급과 관련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대위는 또 문자 발송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제공한 인사를 선대위를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해촉했다.

이 같은 특보 임명장은 인권 운동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까지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달성 경기도 포천시 이주노동자센터 대표·조광주 민주당 전 경기도 의원·강민구 민주당 대구시당 수성구갑 위원장 등도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명의로 된 임명장을 받았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들은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하며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서울 지하철, 8월부터 새벽 5시 '첫차'… 노조 "강력 반대"

노조 "수요 분석 없이 졸속 시행"
시 "2만3000명 이용 전망" 반박

서울시가 근로자의 교통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8월부터 서울 지하철 첫차·막차 운행시간 조정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조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MZ 노조'로 불리는 올바른 노조는 22일 입장문을 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하철 30분 앞당김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사안은 서울시 중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 일환으로 새벽 자율주행버스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새벽 시간 노동자를 위한다지만 운행을 30분 앞당겨야 할 만큼의 구체적인 수송 수요를 분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요 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앞당김은 불필요한 인력과 에너지 낭비"라며 "가뜩이나 적자에 허덕이는 공사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오전 5시부터 5시30분 사이 지하철 탑승 예상 수요를 2만3000여 명으로 추산한다"며 "첫차 운행 시간 조정으로 지금보다 더 많은 인원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수요 분석 결과 오전 5시부터 5시30분 사이 지하철 이용 수요가 많았다"면서 "일반 시내버스는 새벽 1시까지 운행하므로 막차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일반 시내버스나 심야N버스를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새벽 근로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 서울 지하철 1~8호선 첫차 시간을 현재보다 30분 앞당긴 오전 5시부터 운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막차 시간도 30분 앞당겨 종료할 예정이다.

운행시간 조정은 서울 구간에만 적용되며 수도권 구간에서 출발하는 지하철 첫차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한국철도공사·공항철도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운행시간 조정은 새벽 시간대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대중교통 편의를 돕기 위한 조치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새벽 근로자의 출근길을 위해 도봉산광역버스환승센터~영등포역 구간을 다니는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A160)를 운영하고 있다. 첫차는 오전 3시30분부터 다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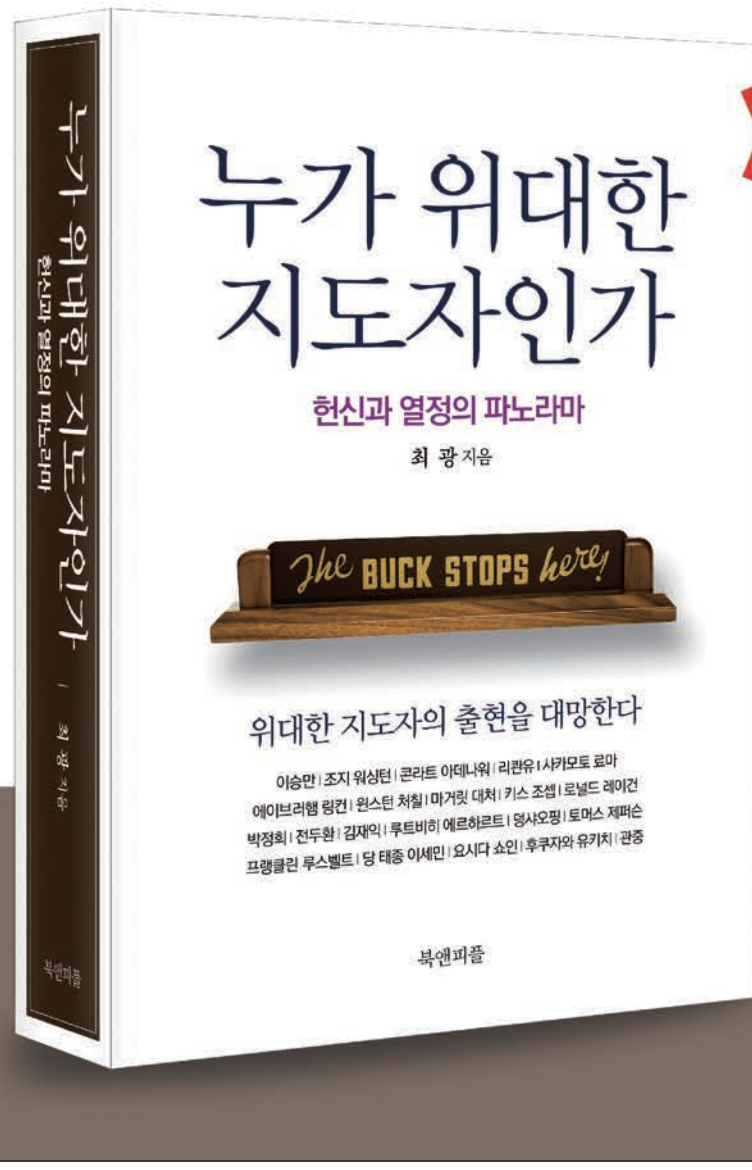
시는 이 같은 새벽 시간의 자율주행 버스도 확대해 새벽 시간대 수요가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총 10개 노선까지 확대한다.

서울시가 근로자의 교통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운행시간 조정에 나섬에 따라 지하철 첫차와 막차 시간이 이르면 8월부터 30분씩 앞당겨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우선 올해 하반기에 상계~고속버스터미널(148번 단축), 금천~서울역(504번 단축), 은평~양재역(741번 단축) 3개 노선에 새벽동행 자율주행버스가 투입된다.

시내버스의 첫차 운행 시간은 오전 4시 전후로 지금까지는 이른 새벽 출근길 근로자들은 주로 지하철 대신 버스를 이용해야 했다. 지하철 첫차가 앞당겨지면 버스·지하철 간 환승도 원활해져 근로자의 교통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화제의 신간!!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헌신과 열정의 파노라마

역사를 살펴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은 각기 다른 시대적 소명을 띠고 태어났다. 인간의 천부적 권리인 자유의 본질을 설파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굴레를 해소하려 했던 지도자,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 인간의 정신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거나 공산주의를 멸망시킨 지도자, 가난한 국가를 경제 대국으로 바꾼 지도자, 혼란과 분열의 구렁텅이에 빠진 나라를 구한 지도자 등 그 내용이 참으로 다양하다.

위대한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한다

이승만 | 조지 워싱턴 | 콘라트 아데나워 | 리콴유 | 사카모토 료마 | 에이브러햄 링컨 | 윈스턴 처칠
마거릿 대처 | 키스 조셉 | 로널드 레이건 | 박정희 | 전두환 | 김재익 | 루트비히 에르하르트 | 덩샤오핑
토머스 제퍼슨 | 프랭클린 루스벨트 | 당 태종 이세민 | 요시다 쇼인 | 후쿠자와 유키치 | 관중

북앤피플 (02-2277-0220)

최 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
현 대구대 경제금융학과 석좌교수